

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식지

AUTUMN, 2018
VOL. 19

SPECIAL ISSUE

"본국사역(안식년)오신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입니다.

TIM은 교회개혁과 전방개혁선교를 핵심사역으로 삼고, 지난 26년 동안 진력해왔습니다.

현재 TIM은 54개국, 422명의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TIM은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교회와 동역할 것입니다.



SPECIAL ISSUE

〈2018 본국사역자 본부사역〉

Welcome Home, you!! 2

김동희 팀장

〈2018 본국사역자 2차 본부사역 소감〉

TIM은 친정 집이다! 6

본국사역자

〈청년동원〉

마른 땅을 적실 새벽 이슬을 내리소서 10

김윤식 목사

〈청년동원〉

그 곳 15

소리엘 선교사



열방에서

〈현지인 교회사역〉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교회 17

이 현 선교사

〈사역 종료 후 선교지 재방문〉

그 뜨거운 여름, 다시 터키 20

이혜린 자매

〈FA선교사 현장이야기〉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시간 23

FA14기

〈강남B공동체 선교사역〉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26

박차홍 집사



본부에서

〈2018 세계선교대회 간증〉

변화는 도전과 기회이다 30

이성령 선교사

〈TIM 교회개혁 훈련〉

예비된 평화의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시간 32

정대훈 선교사

〈MK놀이치료상담사 인터뷰〉

하나님 자녀, 함께 보호해요! 35

유진현 간사 / 최윤미 선생님

〈MK 학습·진로상담 세미나〉

하나님 자녀, 함께 양육해요! 41

라헬 선교사

〈MK입시상담세미나〉

결국 정답은 하나님 44

유은선 선교사

〈MK 학교생활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47

MK 박주원

〈FA선교사 종료 간증〉

축복의 땅에서 만난 친구 49

안보배 선교사

본부소식 51

후원교회(기관) 53

Welcome Home, you!

김동희 팀장

케어조정팀



“Welcome Home, you.

I know you by name. How do you do?

I shine because of you today. So come and
sit down. Tell me how you are. it's good just to
see your face.”

(Brian Littrel의 노래, “Welcome Home” 중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배를 타고 인도 땅에 도착한지 220여년이 흘렀다. 이 시대의 선교사들은 열병과 풍토병, 박해 등의 이유로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으며,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선교사들의 숫자도 20%미만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충분한 안식과 재준비였다. 이러한 윌리엄 캐리의 해안선 선교시대를 지나 허드슨 테일러 등이 사역했던 내지 선교시대도 지나서, 선교대상을 해안선과 내지라는 '땅'의 개념에서 '종족' 개념으로 비꾼 타운젠드와 맥가브란이 주도한 '남은 과업'을 향한 종족선교 시대가 열리며, 선교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남은 과업으로의 새로운 인식을 열었던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감추어진 종족을 찾아 선교하기 위해 리서치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는 등 선교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이루었고, 이미 해안선과 전략적 내지에 리트릿 시설을 갖춘 선교부들은 안식과 재준비 과정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 본국에서의 안식년도 안식보다는 동원 사역 및 차기 사역을 위한 준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서 OMF 등의 국제선교단체들은 안식년이라는 단어 대신 본국사역(Home Assignment)이란 대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교통과 통신이 급진적으로 발달한 21세기 상황은 안식년을 꼭 보내야 하는 19세기나 20세기의 선교사들과는 매우 다른 선교상황으로 변화되어, 카톡 등의 SN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하고 하루 이틀이면 본국과 선교지로의 이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적 변화에 따라 한국 선교단체들도 기존의 전통적인 '안식년'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본국사역 (Home assignment)'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동원 사역과 후원자 발굴, 건강검진, 사역능력개발, 가족관계 증진, 사역보고와 디브리핑, 파송교회와 후원교회 방문을 통한 강의와 설교, 휴식 등을 함으로 본국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TIM의 본국사역은 선교사의 영육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지난 사역을 평가하고, 차기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본국사역 선교사는 본국사역 기간 동안 훈련원의 선교사 연장훈련(H2H, H2K)과 TIM 본부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본국사역자들의 본부사역은 현장과 본부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목적으로 36일간 본부에 출근하여 국내본부사역에 동참하고, 전기사역보고서 작성과 디브리핑, 주요제도와 본부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변화된 본부사역은 기존의 36일에서 5주(25일)로 사역일자를 줄이고 그룹으로 진행하는 등 가능한 현장 선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장

TIM의 본국사역은 선교사의 영육이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지난 사역을 평가하고, 차기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1차 본부사역 선교사 복리뷰





2018년 1차 본부사역 선교사 민속촌 나들이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를 본부가 전심으로 환영하고 격려하여 본부와 현장
이 더 깊은 이해를 가지며, 타지역에서 사역하는 동료 선교사들과도 삶과 사역 그리고 고민
과 대안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를 통해 공감과 지혜를 얻도록 하였다. 2018년 변경된 본부
사역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8유닛(13명)의 선교사가 참석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10유
닛이 예정되어 있다. 현장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아닌 언제나 환영받는 본부라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그것이 변화된
본부사역이길 노력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
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28

언제나 환영받는 본부라는 집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
그것이 변화된 본부사역이길 노력하고 있다.

2018 본국사역자 2차 본부사역 소감 TIM은 친절 집이다!

본국사역자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5주간 본국사역을 하는 7명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TIM 본부 사역을 실시하였다. TIM의 변화된 조직과 각 부서의 업무 이해, NCOWE 선교대회참석, 매뉴얼 리뷰, 각자의 교회개척 사례 발표, 선교지에서의 삶에 대해 나누는 디브리핑, 복리뷰, 위로와 친목을 위한 북 콘서트, 리더십과의 미팅 등의 시간으로 짜였다. 본부 사역 후 H2H(본국선교사훈련) 중인 6명의 선생님들과 TIM 본부사역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부 사역

TIM의 변화된 조직과
각 부서의 업무 이해,
선교지에서의 삶을 나누며
위로와 친목을 하는 시간

6

본부사역 선교사들의 찬양메들리





본부 사역에 들어 오기 전에 본부 사역에 대해 가진 생각들에 대해 나눠주세요.

권능 본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에 솔직히 이런 걸 왜 하나? 했어요. 먼저 본부 사역을 한 주변 선생님들 피드백이 지루하다는 평이 있어서 그 저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어요. 같이 본부 사역 할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몰라서 걱정도 조금 되었고요.

이슬 사실 남편만 보내고 저는 안식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 동안 지쳐있었거든요.



본부 사역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나 유익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권능 저는 북리뷰가 가장 좋았어요. 북리뷰를 통해 책 속의 이론적인 내용이 우리 사역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선교사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삶에서 녹아 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선교지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주제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슬 특히 책을 지정해 주지 않고 선교와 관련된 책 리스트 중에서 선교사들이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매우 좋았어요(모두들 동의). 선택의 자유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한 삶을 나누는 디브리핑 시간도 좋았습니다.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각 선교사님들의 성품과 특성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저는 교회개혁 사례 발표가 가장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의 사역소개를 들으면서 우리 TIM 안에 하나님의 보배 같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다는 것, 내가 몰랐지만 귀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마음으로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선교현장이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사랑, 호기심, 기대가 생겼어요.

지혜 저는 아침 기도 모임도 좋았어요. 먼저 하루의 일과를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과 우리 본부 간사님들과 팀장님 모든 staff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깊은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것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복콘서트도 좋았고요. 바쁜 와중에 간사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가족, 친지들과 몰래 연락해 영상을 만들어 우리를 감동케 해 주시고... 복면가왕도 즐거웠어요.



본부 사역 중 가장 좋았던 것 또는 본부 사역을 통해 얻은 유익들에 대해서 나눠 주세요.

- 드보라** 사역 기간 내내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았어요. 본부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모두 물개박수로 동의) 맡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섬겨 주셔서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사역지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평가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었어요(모두 웃음). 본부 staff들도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공동체를 얻었다는 큰 유익이 있었어요. 특히 이슬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쌀국수가 서로 마음을 여는 좋은 계기였답니다.
- 이슬** 숙소 앞에 심겨진 민트 덕분이예요. 남편이 민트가 심겨진 걸 발견하고 선생님들과 쌀 국수 해먹자는 제안을 했어요.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보니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신의 한 수였어요. 쌀국수 먹고 얘기하다 이번에 참여한 세 분 남자 선생님들이 모두 같은 나이시고 7080시대에 음악을 좋아하셨다는 공통점을 알게 되었고 기타 치며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더 열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요한**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짧은 만남 속에 복음을 전하지만 시간이 지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 맺고 심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남이 뿌린 씨앗의 유익을 얻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사역의 열매는 어느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니까요.
- 권능** 저는 본부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본부의 고충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부족해도 사랑으로 서로 품으며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동료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실제로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시니까요-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부 사역 중 저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한 윤정노 선교사님과 김동희 팀장님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고 배려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지혜** 저는 사실 burn-out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본부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배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감사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을 신뢰해 주고 존중해 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함께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본부 사역이라고 했지만 선교사 케어를 받았네요.

본부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맡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섬겨 주셔서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본부스텝들의 복면가왕

Q 다음 본부 사역을 위해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지혜 본격적인 본부 사역 전 ENCOWE(세계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 후에 본부 사역을 해서 자유롭게 토의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본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권능 사역의 경우 교회개척사례 발표로, 선교지에서의 삶의 경우는 디브리핑으로 나누어 나눔을 가졌었는데, 다음에는 사역과 삶이 합쳐진 좀더 종합적인 디브리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더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새벽 본부 사역하는 멤버 숫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 7명이어서 토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에 적절했거든요. 몇몇 프로그램은 간사님들, 팀장님들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서로 이해하고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업무 때문에 바빠졌지만 간사님들, 팀장님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 지길 소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본부사역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팀 본부사역은 이다.

요한 본부를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새벽 존중과 신뢰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지혜 TIM은 친정 집이다!

이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집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쉬는 느낌!

권능 모든 분들에게 강추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SPECIAL
ISSUE

청년동원

마른 땅을 적실 새벽 이슬을 내리소서

김윤식 목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선교는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사명이 되었고,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은 지금도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 명령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명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인식한 시점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불문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카운트다운



지난 선교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다양한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세대는
언제나 '청년 세대'였다.

아이와 청년과 성인과 노인, 모든 세대가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선교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는 요엘 선지
자의 예언처럼 모든 세대가 각자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주님의 일은 온전히 성취된다.



과거의 청년세대 - 선교와 부흥의 동력

지난 선교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다양한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세대는 언제나 '청년 세대'
였다. 요한웨슬레에 영향을 미친 모라비안교도들은 청년
때에 훈련을 받고 파송되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19세에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된다. 중국 내지 선교





에 헌신하여 영국 교회에 도전을 준 케임브리지 7인은 모두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이었다. 미국 해외선교의 문을 연 사무엘 밀즈도 대학생일 때에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선교사들은 학생자원운동(SVM)을 통해 일어났다. 모두 그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다.

이는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을 당시 각각 25세, 26세의 젊은이였다. 1958년 김준곤 목사가 설립한 한국CCC와 같은 청년운동은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엑스포로 74' 대회에는 323,419명이 참가했고 이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이듬해 33%의 성장을 기록한다. 1988년 시작된 선교한국운동은 지난 15번의 대회를 통해 총 35,667명의 청년 헌신자를 배출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세대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지만 특별히 각 시대마다 청년 세대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해주셨다. 청년들은 시대마다 선교와 부흥의 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의 여러 지표들과 청년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도 이전과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청년 세대의 역할이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도 너무나 절실하다.
교회는 열심히 청년들을 선교로 인도해야 한다.

여름 아웃리치



현재의 청년세대 - 개인주의와 미래에 대한 걱정

2015년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4년,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20대 기독교 인구 수는 5%p 하락, 30대는 3%p가 하락했다고 한다. 반면에 20, 30대의 비종교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화되었다. 지난 해 NCCK 청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가 실시한 '청년의 교회/종교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얼매이기 싫어서'로 전체 응답자의 29.9%였고 2위는 '시간이 없어서'로 전체의 27.4%였다. 또한 '교회를 떠난 계기'는 49.4%로 '개인 사정'이 압도적인 1위였다. '청년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1위 답변이 30%를 차지한 '돈'이었다. 오늘날 청년들은 개인주의와 미래에 대한 걱정,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집단이 되었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청년 선교사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부채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88%가 증가했다. 모든 연령 계층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대출 목적의 1위는 53.2%로 학자금이었다, 대학생 대출 목적의 1위는 85.9%로 학자금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16년 채무조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모든 세대 가운데 20대의 개인 파산 신청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 멈출 수 없는 선교적 비전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 신호 속에서도 이 시대 청년세대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국내외 각 지역으로 총 2,900여명의 청년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 해 열렸던 '예배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3,000명, 장충체육관 연합집회에서 6,0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선교적비전을 나누었다. 지금까지 4회의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서 누적 477명의 청년 선교헌신자가 나왔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FA(Frontier Agency)는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청년선교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인적 자원과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선교적 인프라, 교회 선교 본부의 지원 간의 융합사역을 통해 구현된 사역이다. 현재까지 14기가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226명의 FA선교사가 파송되었다. FA는 이후 1년 이상 단기 프로그램인 TP(Turning Point)나 장기선교사(OSOM)로 이어지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올 상반기에도 1명의 FA선교사가 TP로 전환해 현장에 나갔고, 3명은 TP로의 전환 대기 중이다.

FA는 오늘날 대학생,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단기 선교 파송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춰준 프로그램이다. 이로써 선교지에 일어나는 명목상 효과는 '청년 선교사 공급'일 뿐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우리의 기대를 웃돈다. FA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청년 선교사의 공급이 선교





FA선교사와 현지 청년들과의 교제의 시간

지에서 현지인 접촉 채널을 다양화하고, 사역 역동성을 제고하며, 현장의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 경계적 상황가운데 나타나는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 은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청년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 세대의 역할이 오늘날 세계 선교 현장에도 너무나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청년들을 선교로 인도해야 한다.

시편 110편 3절에서 다윗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했다.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전 대학생 시절에 태백산으로 산기도를 다니던 때였다. 산을 오르는 초입길 비탈 옆으로 경사진 배추밭이 넓게 있었다. 그 배추밭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고루 퍼져있었다. 그래서 나는 함께 오르던 분들에게 “밭에 돌을 미쳐 고르지 못했나보네요.”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지역 분께서 말씀하셨다. 태백 지역은 고지대라 물이 귀하고 일교차가 크기에 새벽에 나는 이슬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도록 밭에 돌을 두는 것이며, 그것이 태백 고랭지 배추의 아삭한 식감의 비밀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농사 환경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역시 물이 귀하고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서도 태백과 같이 이슬을 이용하는 방식을 농업기술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적인 물부족국가인 동시에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이기도 하다. 땅의 물이 부족할 때에 공급받는 공중의 물, 그게 새벽 이슬인 것이다. 결국 절박함이 풍요를 이뤄내는 것이다.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경계적 상황에 놓인 청년 세대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열정을 가진 세대이다. 또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 높은 산 위 비탈에도 이슬과 같은 물로 적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세대이다.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복음에 매마른 열방 곳곳을 적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청년동원 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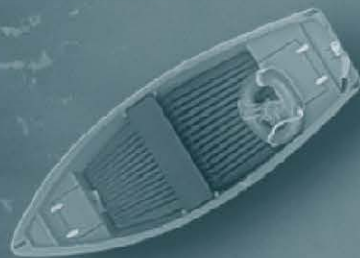
소리엘 선교사
인도네시아



SPECIAL
ISSUE

사무엘상 10장에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장소가 블레셋 진영 문앞에서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산에,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 하나님은 평범했던 사울을 ‘그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성령을 부여주신다. 일상이 된 블레셋의 지배, 그 진영 또한 지나다니며 늘 보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제일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다(삼상13:1-4). 하나님이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곳이 골방이 아니었듯,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 어딘가로 데려가고 싶어하신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 물론 골방에서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 단, 그 곳이 ‘나’ 아닌, 현실에 대한 깊은 아픔과 탄식으로 채워진다면 말이다. 나의 문제로만 가득 찬 골방이 역사의 현장이 되는 법은 드물다.

15



동쪽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은 모세가 어려서부터 봐온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출2:11은 그 날을 그가 ‘장성한 후’라는 말로 표현한다),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동족들이 종노동하는 것을 지켜보다 순간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인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가는 차후의 문제였다. 그보다 먼저 그는 동족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했다. 하나님은 분노도 얼마든지 비전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분노조차 없는 자를 쓰시지는 않으신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머물 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삼상22:2). 골리앗을 죽인 다윗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살며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 할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열방에
교회를
세우는
Yim

청년이라면 두려워 말고 '그 곳'으로 가야 한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한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담아 주셨다(느2:12).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 그는 궁을 나와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곳’을 직접 밟으며 걸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느2:13-15) 직접 가서 보고 걸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분명해졌다. 그는 철저하게 파괴돼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안 종이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끌어 안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한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던 때였다. 북쪽으로는 대제국 앗시리아의 남하가 예상되고 있었다. 비록 작은 세력이었지만, 결국 앗시리아를 이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동쪽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보좌가 흔들렸다. 웃시아 왕이 죽었다. 이사야는 밀려오는 파멸의 시간을 감지하며 성전으로 향했다. 절체절명의 역사를 온 몸으로 끌어 안고서 그는 ‘그 곳’에서 말씀을 받는다. 하늘 보좌에 앉아 성전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한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눅3:1-2), 하나님의 말씀이 세레 요한에게 임한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그 현실을 가슴으로 안고 ‘빈 들’에 선 자에게 말씀이 임한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곳이 있다. 청년이라면 두려워 말고 ‘그 곳’으로 가야 한다. 가서, 머물며,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방향하고 유리하는 백성들 사이에 계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쉬실 수가 없으셨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9:35), 잠도 주무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어부였던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폭풍 속 요동치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고 바닷물이 온 몸을 적셨을 텐데도 깨지 않으셨다(막4:38).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마9:36-10:1)

미래가 아니라 순종을 생각할 때다.

이 현 선교사
인도

안녕하세요! 인도 델리에서 2기 사역 중인 이 현 선교사입니다. 지난 5년 간의 1기 사역은 언어와 문화 적응, 그리고 담당하는 사역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동료선교사들의 사역까지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국 사역 이후의 2기 사역은 3유닛이 전략적 팀(ST)으로 함께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팀 사역을 이해, 협력,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델리ST는 K지역에서 교회사역과 제자훈련, 어린이사역과 어린이 제자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지역은 저소득층 지역이지만 교육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K지역의 높은 교육열로 시작된 방과 후 사역은 이후 교회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7

달란트 시장





청소년 수련회

변화의 씨앗 - 말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힌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힌두 종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며 “주님!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갑니다”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망령되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의 분노와 안타까움, 아버지께 대한 미안한 마음, 아버지가 저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속상함으로 평평 울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 된지 5년째가 된 올 2월 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경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며, 먼저 성도들을 영적 고아로 머물게 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도약을 바라는 집회를 가졌고, 강사님은 똑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부수며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랐다’는 라헬의 고백과 ‘교회에 오고 싶지 않던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한다’는 타라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열매

수요 여성 모임이 생겼고, 힌디어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 여성들의 성경을 읽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힌디클래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교회에 나와 성경공부와기도를 하고, 토요일에는 교회를 청소하며 주일을 맞이합니다. 수요 여성 모임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성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위해 간음, 낙태 등을 다루며, 그것이 죄임을 인지 못했던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는 매달 한번씩 가정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 여성 모임과 가정모임을 통하여 가정교회를 인도할 여성 리더들을 발굴하고,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 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경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며, 먼저
성도들을 영적 고아로 머물게 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발견 성경공부(Discovery Bible study) - 청소년 리더 훈련



작년 9월부터 주일학교 리더를 세우기 위해 현지인 사역자와 15명의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삶의 순종과 변화를 이웃과 나눔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침과 학습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성경공부가 처음이라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뻐 바라보시겠죠? 청소년 리더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은 현재 주일학교 소그룹을 인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이 훈련인 우리의 삶 이라지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나이를 막론하고 어렵습니다. 크던 작던 그 거짓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요. 청소년 리더 중 한 아이가 현지인 사역자에게 방과 후 교실 영어선생님이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주일 날 그 아이가 저에게 "어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사역자에게 용서를 구해라!"라고 말했고, 아이는 사역자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짓말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곳 사람들이기에 이 친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서서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원동력!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K지역과 인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중보해주세요.

19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기도제목

1. 아이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2.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3.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채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열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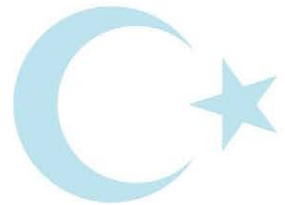
사역 종료 후 선교지 재방문 그 뜨거운 여름, 다시 터키

이혜린 자매
온누리교회

전 세계적으로 빈번했던 폭탄테러로 2016년부터 FA선교사들의 터키 진출이 가로막혔다. 이로 인해 청년부 여름아웃리치 또한 닫히면서, 2015년 여름 FA 선교사로 파송 받고 이후 단기선교사로 전환하여 사역했던 나로서는 터키의 달함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다. 터키만큼 청년들을 접촉하고 보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드물기에 터키가 다시 열리기를 소망했다.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여름아웃리치로 터키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소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공동체 아웃리치 팀과 함께 터키를 다녀왔다. 단기선교 사역을 종료한 후 1년 만의 여정이었다. 아웃리치팀과 일주일의 일정을 보낸 후 나는 2주 동안의 짧은 후속사역일정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 십자가와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 가득 담고 돌아왔다.

20

2012년 처음으로 터키에 가다





같은 시간, 다른 기억

2017년 7월, 터키비자가 끝나는 날이자 단기선교 사역의 마지막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내 마음은 참담했다. 분명 내 안에 예수그리스도와와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는 기쁨 가득해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의 내 입술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 '주님 보세요. 제 몸은 병들었고, 사랑 없는 마음은 상할 만큼 상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어요. 주님, 저와의 이번 사역은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관창은 척, 감사한 시간들(분명 감사한 시간들이었다)을 고백하며 남 몰래 내 안에 패배감을 감추고 살던 시간가운데, 주님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시고자 내게 몇 가지의 시련 속 광야로 부르셨다. 갑작스런 암 선고, 수술 후 짧고 굵었던 투병생활, 연이은 어머니의 심장수술, 녹녹치 않은 사건들에 동요하며 낮아진 내게

주님은터키에서의시간속에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주셨다. <뜨거운 태양 아래, 길게 뻗은 길. 크기가 각각 다른 돌들로 이루어진 보도블록 조각. 그 옆으로 대충 심었지만 탐스럽게 피어있던 들장미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음은 설레어왔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은 기쁨으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친구는 어느 때보다 예뻐 보였고, 그 친구가 해주는 학교와 가족이야기는 매번 들어도 흥미진진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다.

내 진짜 기억은 <더웠다. 버스타기도 걷기도 애매한 길. 걷기로 결정했지만 더운 날씨에 곧 바로 후회했다. 거친 보도블록은 불안했고, 담배냄새 가득한 길에 영성하게 피어있는 장미는 볼품없었다. 또 약속시간보다 늦은 친구가 짜증났다. 한 번도 제 시간에 나온 적이 없지. 친구는 오자마자 학교친구들과 교수님들, 가족에게 있던 일들, 전화로도 했던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한다. 함께 웃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이야기를 할까봐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눈치보는 친구가 알찼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너의 인생이 힘든 진짜 이유를 알려주고 싶다. 넌 예수님을 안 믿잖아! 네가 믿는 신은 거짓이라고!>

같은 시간인데 내게 남은 또 다른 기억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주님과 같은 기억으로의 변화

"주님, 이 기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 기억이 아닙니다. 어딘가 잘못됐어요."

"너를 통해 내가 본 기억이란. 너와 함께 한 나의 기억이란. 나는 너와 행복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신 기억으로 가감 없는 나의 죄성이 드러나 충격적이었다. 사랑 없이 교만 가득 찬 마음으로 사역으로만 교제한 그 영혼에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과 누리지 못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내 패배감과 실패감은 역시나 주님과의 시간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내 연약함을 틈탄 사단의 거짓이었다. 같은 시간 다른 기억들은 나에게 치절한 회개시간이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그 사건으로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기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내게 분명히 해주셨다. 내가 다시 터키를 가야하는 이유가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다시 가야했다. 이번엔 반드시 주님과 같은 기억으로 그 땅을 밟아야 했다!



FA때부터 4년동안 교제한 감제와 함께

하나님은 지난 단기사역에 대한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던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셨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키에 가기가 쉽지 않았기에 팀으로 함께 떠나는 아웃리치
는 걱정하는 부모님을 설득시키기 좋은 명목이 되어주었다.

22

나와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FA와 단기사역 기간 내내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고 교제했던 크리스천 친구, 언어를 배우며 친해져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 한국인이 좋아 한글을 배우려다가 복음을 들어버린 친구, 세례까지 받았다가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 간 친구, 교회와 사람들이 싫어 떠난 친구, 복음을 전한 순간에는 반응이 없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궁금해 하던 친구, 신실한 무슬림 남자친구가 생기는 바람에 크리스천인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친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 마다 늘 내 마음 한가운데에는 아쉬우면서 아프게 찢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 때문인지 나는 내게 주어진 2주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단기사역 종료 후 1년 동안 주님이 내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지난 단기사역에 대한 실패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던 나의 교만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고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해주셨다.

이번 터키로의 여정은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시간인 동시에 피부로 느껴지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그 땅도 사랑하심을 아는 시간이었다. 다시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제はその 충만한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다. 소망과 기대로 아마도 내일은 주님이 하라하시면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두 손을 모아본다.

FA14기

인도네시아, 네팔, 동아시아 A국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간 - 인도네시아

저는 2017년 9월 FA13기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이후 2018년 3월 14기로 다시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현지 언어가 안 되는 현실에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하고, '과연 친구들을 사귄다'고 있을까?' 걱정하던 때 학교 선생님의 초대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을 믿기지 않

아 하며 우리를 연예인 보듯 반겨주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을 사귀어 갈수록 무슬림 친구들 또한 그저 질밥(인도네시아식 히잡)만 썼을 뿐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한 영혼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3

인도네시아 - 친구초청잔치 친구들





예배를 세워가는 시간 - 동아시아 A국

동아시아 A국은 정부의 강한 제재 속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위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땅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세워가는 2달여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현지 사정상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친구들과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던 친구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시간 - 인도네시아

6개월을 함께 한 공동체 생활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당시에는 분명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그 일은 힘들보다 재미있는 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팀보다 공동체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그 작은 공간을 청소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청소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온 방법을 고수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하는 시간마저 한 마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워 온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틀린 것이 아니기에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노력하며 지냈던 우리의 그날들을 추억합니다.

네팔 - 친구초청잔치 단체사진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 네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다음 FA가
이 친구들을 만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의 마지막 피날레와 같은 친구초청의 날! 이 날이 현장사역에 대한 모든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급함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더해 크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좇아갔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나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고 네팔 친구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초청 잔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친구초청 잔치 당일, 더운 날씨와 가족들의 반대로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네팔의 번더(대모의 일종으로 달는다는 뜻)로 인해 우리가 예상했던 친구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물려와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Th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주님은 누구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함께한 104명의 친구들 중 60여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네팔 땅이기에 그들의 고백이 진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친구들이 맛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다음 FA가 이 친구들을 만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FA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를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FA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며 선교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반겨주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써 그 분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블레싱한 선생님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선교지에서

소통

아웃리치를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선교사님의 필요에 맞추었다.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역자는 공동체에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를 이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도우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역 중심이 아니라 현지 상황을 알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축복

여러 결연선교사님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국제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동료 선생님을 축복했던 것이다. 기독교 학교지만 믿음이 없는 불교 선생님이 더 많고, 현지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을 환영하고, 섬겼다. 한국 선교역사 중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과정을 소개하며, 불교국가 선생님들에게 비전과 복음을 전했고, 그 때 현지 선생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방언을 하는 역사가 있었다.

선교사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역자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섬김

현장에 가면 대부분은 아웃리치를 간 사람이 중심이 되기 마련이다. 강남B 공동체는 모든 사역 방향을 선교사님에게 맞춰 섬기기만 했던 선교사님들을 섬겼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기에 현지인을 위해 특화된 의료사역과 이미용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다.

강남B공동체 선교사역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박차홍 집사
온누리교회

강남B공동체에는 다른 공동체에 없는 한가지가 있다. 바로 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다락방선교사역자이다(올해부터는 각 순에도 순 선교담당을 세웠다). 강남B공동체는 3개의 끈으로 선교 공동체를 이루도록 묶었는데, 첫째 끈은 결연된 선교사님에게 매월 보내는 선교 후원금이다. 각 순은 매월 1만원을 다락방선교사역자에게 보내고, 다락방선교사역자는 공동체 선교통장에 입금한다. 공동체는 다시 각 다락방 선교사역자에게 매월 5만원을 보내는데, 이를 결연선교사님에게 후원한다. 보내고 받고, 보내고 다시 받아서 후원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고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위해서다. 둘째 끈은 다락방 결연선교사 소식과 긴급 중보기도 나눔이다. 선교지 소식과 중보기도 요청이 오면 공동체 내 선교사역자가 함께 모여 정기적인 교제를 하며 다락방 별 기도제목을 나눈다. 세 번째의 견고한 끈은 성경통독 말씀 파일을 공유하여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위임 명령을 하시고 내가 아닌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마28:20)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교공동체를 이루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강남B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셨다.

26

스리랑카 아웃리치





한국에서

소통과 동역

작년 7월, 선교지에서 베나야 학생의 얼굴 사진과 함께 문의가 왔다. 2살 때 침대에서 떨어져 눈을 다쳤고, 선교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눈이 더 붓고, 모습이 변했다고 했다. 13살 베나야가 한쪽 눈을 잃을까 염려가 된다는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강남B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여러 방면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 의료팀장의 수고하심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수술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진료가 허락 되었고, 지난 1월 베나야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2차 수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해서 하지 않기로 했지만, 1차 수술의 치료 만으로도 베나야 모녀와 선교사님은 감사하며 기뻐했다. 수술과 회복, 통원 치료의 모든 과정에는 아웃리치에 함께한 공동체 식구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교지와 공동체가 함께 선교한다는 마음이 더 들게 하는 동역이었다.

모든 과정에는 아웃리치에 함께한
공동체 식구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베나야의 수술과 회복을 도운 공동체 식구들





2018년 책임선교사 기도회

축복과 중보기도

결연선교사님이 국내 방문 시에는 강남B공동체가 섬기는 도곡성전 9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축복하며 기도제목을 나누는 전통이 생겼다. 예배를 마치고 담당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도 갖는다. 왜냐하면 선교는 관계를 통하여 나누니까서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B 공동체는 매년 책임선교사 기도회를 실시한다. 작년에는 10개 다락방에서 4Unit의 결연선교사님이 기도회에 참석해 선교지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을 직접 들으며, 하나되어 뜨겁게 기도했다. 올해에는 강남B공동체가 도곡공동체와 둘로 나뉘어져 5개 다락방이 되었지만, 기도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었다. 각 순 별로 선교담당이 세워지고, 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더해진 결과이다. 2013년에 다락방선교사역자가 세워졌고, 올해는 각 순에도 선교담당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선교하는 강남B 공동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공동체선교사역자는 선교사의 필요를 눈으로 살피고, 그의 기도 소리를 귀로 듣고,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함께한다.” 공동체에서 선교사역자는 청지기 역할이 크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교적 책무를 공동체에서 실행하도록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동역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에 빛진 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소서. 선교사의 필요를 보고 그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선교사의 필요를 눈으로 살피고,
그의 기도 소리를 귀로 듣고,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함께 한다.



본부에서

2018 세계선교대회 간증 변화는 도전과 기회이다

이성령 선교사
튀니지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2018 세계선교대회 및 7차 선교전략회의(NCOWE VII)가 열렸다. TIM 본부 스텝들과 2018 본국 사역자들이 함께 대회에 참여하였다. 4년마다 개최돼 '선교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이 대회에는 한국 선교계의 여러 지도자들과 각 단체로부터 선교사들이 참여하였고, 국내선교단체인 비전선교팀의 청년 선교지원자들이 발문티어로 섬기며 행사를 진행하였다. 여러 강사들의 선교적 열정도 감동이었지만,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이런 행사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섬김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함께 그날까지'란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 현지 교회들과 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며,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한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는 동역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한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는
동역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어 7차 선교전략회의(NCOWE VII)의 주제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그중 서동혁 교수는 이전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분야가 격변하고 요동쳤지만, 각각의 산업혁명은 세계선교에 이바지 한 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1차 산업혁명은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신항로가 개척되고 증기선이 출현하면서 영국의 영향력 속에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나라들로 선교사들이 나갈 수 있었다.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의 전기의 발명으로 전구, 모터, 대량생산과 자동화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1,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인류의 잔악성과 세계파멸의 두려움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달을 통한 유토피아를 꿈꾸던 헛된 망상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이후 3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기기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미디어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선교를 위한 콘텐츠와 콘텐츠 전달 채널의 다양화가 이

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선교선진국들의 선교자원의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위에 서술되어진 바와 같이 각각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질 만큼 선교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키워드는 융합과 연결이며, 특징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이런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예측 가능성'이 극대화된 시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시대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인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존의 인류의 질서와 체계를 허물어 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자동 번역/통역 시스템은 전세계의 언어장벽을 낮추어 선교계에도 새로운 차원의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는 이전의 어떤 변화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변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와 야곱과 요셉의 요동치는 삶의 변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사도들의 시대는 또 어떠했는가? 로마제국이 강력하게 일어나며 새로운 법과 질서 그리고 로마황제의 신격화에 초대교인들이 겪었을 그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구원도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의 엄청난 변화이다. 이 변화는 4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변화이고 가치의 변화이고 영적인 변화이다. 변화(Change)는 하나님께 속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도전(Challenge)이며 기회(Chance)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신세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인공지능과 나노 첨단산업 그리고 3D 프린터 등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까지 이끌어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의 선과 악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가치중립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대상은 '한사람'이며, 회복 대상은 '온 세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도전이며 기회이다.



본부에서

TIM 교회개척 훈련 (TIM Church-planting Training)

예비된 평화의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정대훈 선교사

TIM 본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친다 (개역개정, 행28:31)

2018년 7월 3일 안산 온누리 M센터에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018년 TIM 교회개척 훈련 (TIM Church-planting Training, 이하 TCT)에 18명의 신임선교사들과 9명의 MK가 함께합니다.

TCT는 다음의 3가지 훈련목표를 가지고, 12주 동안 안산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전도, 영접, 세례 등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선교적 공동체(교회)를 개척한다.

(이는 선교현장에서 사역할 모델을 선교지로 떠나기 전, 국내에서 먼저 사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2. 다른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사역함으로써,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팀(team) 사역을, 훈련을 통해 경험한다.

3. 훈련을 통해 TIM을 이해하고, TIM 선교사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2017년 교회개척 훈련 중 영접한 캄보디아 형제,자매





2017년 교회개척 훈련 중 영접한 캄보디아 형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해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선교사역의 기초가 되는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훈련으로, TIM에 새로 허입된 신임선교사가 전도의 야성을 키우고, 전도의 DNA를 심는 시간이며, 선교지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근육을 키우고, 거절감의 내성력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넬료, 에티오피아 내시 등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그 복음을 들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예비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해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전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평화의 사람을 찾고,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33

저는 2017년 TCT 훈련을 받은 9명의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2017년에는 7월 12일부터 약 10주간 9명의 선교사가 3,392명의 영혼을 만나고(실제로 만났던 영혼은 약 4000명인데, 짧은 시간의 만남은 제외하였다), 2,087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선교적 교회개척 방법론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복음을 모두 전하는 것), 427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9명의 선교사 대부분은 이미 선교지 사역을 경험 하였거나 국내에서 사역자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초기에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훈련초기에는 수 많은 거절을 통해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환경이 복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9명의 선교사들은 ‘하루에 최소 3명이상은 전도하고 잠자리에 들겠다’는 결단과 ‘전도하지 않고는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네팔 형제가 복음전파와 기도를 통해서 아픈 부위가 회복되었고, 무슬림 캄보디아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TCT훈련을 통해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평화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부에서

TIM 교회개혁 훈련 (TCT)은 선교를 복음이라는 본질로부터 다시 출발하자는 훈련입니다. 선교지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훈련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 많은 거절과 낙담을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훈련에서 살아남아 승전가를 울리 수 있도록 신임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받는 거절 속에 낙담치 않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와 환경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신임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7년 TCT 훈련을 받은 9명의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훈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부르심 받은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중보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훈련에서 살아남아
승전가를 울리 수 있도록
신임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2017년 교회개혁 훈련 중 만난 베트남형제



MK놀이치료상담사 인터뷰

하나님 자녀, 함께 보호해요!



유진현 간사 TIM본부
최윤미 선생님(인터뷰) 놀이치료상담사

35

우리의 몸은 발달된 문명으로 편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소통이 단절된 외로운 삶과 매일의 삶을 경쟁 속에서 날을 세우며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해,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는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수가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이하 MK)도 예외가 아니다.

TIM은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일을 겪으며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선교사와 MK의 회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도우면서도 심리검사와 결과를 통한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국사역이 아니어도 방학기간을 이용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MK들도 있는데, 다각도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 몰려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MK 삶 속에서 상담은 뭘해야 뭘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체감하게 된다. 상담사는 내담자를 누구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담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선교사와 MK를 상담하는 데는 선교 현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더 필요로 한다. 특히나 자신의 심리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아동(2세~12세)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상담이라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면서도 학습이 아닌 놀이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놀이치료상담'을 통해 감정의 표현과 한국말이 서툰 MK들이 거부감 없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이들과 놀며 그 마음을 들여다 보는 '놀이치료상담사' 최윤미 선생님을 만나 일반 아이들과 MK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본부에서

Q 놀이치료상담과 MK놀이치료상담사역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A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지내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후 나와 같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대학 진학을 심리학과로 했지만,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꿈을 포기했었어요. 2010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놀이치료사가 되었고요. 유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섬길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 2015년 여름, 10년 만에 우연하게 만난 이은경 교수님(MK들의 학습진로상담 사역을 하신다)이 MK들을 위한 사역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하셔서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Q 놀이치료 상담을 받는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A 저는 29개월부터 고3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연령대는 초1~4학년 남자 아이들이고요. 보통은 유치원 때 혹은 그 이전에 문제를 보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라고 지켜봐요.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여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한 문제를 듣고 난 후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보다 요구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요.

Q 일반 내담자의 경우 어떤 어려움으로 놀이치료상담을 받고 있나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A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래와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적 문제나 분노폭발, 행동문제와 같은 조절문제로 의뢰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한 가지 원인으로는 말할 수 없고, 개인의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공부 스트레스가 많아 지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요.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친구들은 학원에 가야 만날 수 있죠.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보다 요구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이치료상담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번 놀이치료에는 아버지가 함께 하였다.

Q 일반 내담자와 MK내담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A 공통점은 둘 다 대부분 기질적인 문제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문제가 결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아이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주변에서 배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하지만 MK아이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교회 내에서 인식의 문제 때문에 숨기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MK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순수하고 마음이 어려서 자기를 오픈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데, 선교사 자녀라는 굴레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짐이 되는 것 같아요.

37

Q 상담 받았거나 상담 중인 MK들이 현장에서 어느 때 가장 어려워하나요?

A 어느 연령에,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 보면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문화와 종교가 다른 것 역시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현지 아이들과 겪는 갈등과 본인들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MK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부모선교사님은 현지에 선교사 네트워크도 있고 어느 정도 비전 트립이나 훈련을 통해 여러 변수들을 줄이면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선교지에 가시는 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었던 것들과 준비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낯선 땅에 가게 돼요. 어떤 일을 어떻게 겪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부모의 도움과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합쳐져 MK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본부에서

Q MK들이 내적 어려움을 겪을 때, 현장에서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이러한 경우 부모선교사님들이 MK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하나요?

A 일반 아이들이나 MK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아이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만 하면 아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길을 찾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평상시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38

Q 현장에서 MK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게 위해 자녀와 대화하고 경청하는 것 외에도 부모 선교사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A 아이들이 완벽하게 잘 적응해주길 바라는 기대와 압박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는 부모선교사 못지않게 아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한 상당해요. 선교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며 언어도 어렵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떠난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등을 어린 아이들은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나 짜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당장 바로 잡으려고 하거나 혼내기 보다는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Q 그렇다면 MK들의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위해 MK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A 비록 선교지에 있고 선교사의 자녀이지만, 너무 빨리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부모님이 사역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같이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MK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해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Q 놀이치료상담을 받는 MK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돌봐야 MK들을 향한 중보자들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까요?

A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어려웠을 때일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혼자서도 이길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한 인생을 뜻하거나 약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어요. 상담은 단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도움일 뿐 이겨내는 것은 본인의 몫이죠. MK들이 상담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한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선교사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MK들이 더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 상담은 예방 차원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MK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서 '부모 문제가 아닐까?'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MK들과 부모 선교사님은 상담을 꺼리게 되고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상담자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일하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보다 건강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잘 적응하는 MK들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Q 선생님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나눠주세요.

A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지만 저는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상담만으로는 반쪽 밖에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공부도 가르쳐줘야 하고 밥도 먹여줘야 해요. 그러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시설이 필요한데 향후에는 그런 곳과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센터를 열어보고 싶어요.

39

어려움이 올 때
혼자서도 이길 수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한
인생을 뜻하거나 약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본부에서

인터뷰를 마치며

낮 최고기온이 연일 최고점을 찍어간 8월,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출국을 앞두고 있는 신임선교사 자녀의 치료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수고해 주시는 최윤미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의 사역에 대해 나누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아이와 공룡놀이가 한창이었다. TIM 본부에서 사역 중인 부모와 함께 사무실에 자주 오던 아이였고, 평상시 나를 잘 따르던 아이였기에 나는 불편함 없이 방으로 발을 디뎠다. 순간 신나게 놀던 아이가 멈칫했다. “우리 자주 보는 사이인데 왜 낯설어 하지?” 의아해하는 내게 선생님은 놀이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시간인 만큼 아무리 낯익은 사람이라도 아이는 어색해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아이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자신이 신뢰하는 선생님과 여러 상황 놀이를 하면서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아이가 기뻐하도록 놀아주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놀아달라 오는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다.

40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아이가 기뻐하도록 놀아주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MK 학습·진로상담 세미나 하나님 자녀, 함께 양육해요!

라헬 선교사
타지키스탄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진로 상담사로 종횡무진 사역하고 계신 이은경 교수님이 지난 6월 초 교육의 황무지,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주셨다. 모든 부분에서 한국보다 뒤처지는 이 곳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뒤처짐은 자녀들의 교육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교육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곳의 열악함과 미안함, 교육의 갈급함을 부모 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 휴가기간을 쪼개면서까지 한 걸음에 찾아와 주신 이은경 교수님! 학습·진로 개별상담과 세미나는 무엇보다 교수님의 MK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시간이었고, 자녀교육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단비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론과 다른 현실 속 교육

41

일반적으로 부모선교사들은 선교지로 나가기 전 MK자녀 교육 세미나들을 듣는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언어와 사역과 타지키스탄 현지의 환경적 불안, 즉 비자의 불안정과 현지문화로부터 오는 압

학습·진로상담 세미나에 참석한 부모선교사



박은 부모와 자녀들을 위축되게 하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어느새 잊게 만든다. 타지키스탄의 MK 교육은 크게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현지학교를 보내거나 영어 홈스쿨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학교는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 홈스쿨은 MK학교로서 부모들의 재능기부와 섬김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지만, 비인가 홈스쿨이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과 진로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보딩스쿨을 찾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건무, 건민의 교육 - 아쉬움과 감사함의 시간

우리 가정이 선교지로 처음 나갔을 때 건무 6살, 건민이 3살이었다. 미취학 아동이었던 아들들이 현재 19살과 3, 16살 중3이 되었다. 건무와 건민이는 3개국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쉽지 않은 교육환경 속에서 지냈다. 어린 나이의 MK의 삶은 부모와 함께 하며,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나름 괜찮은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교육목적이었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원하고 즐겨워하는 것을 하도록 했다. 하

지만 첫째 건무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던 성격과 잦은 현장의 이동으로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본국사역 후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면서 비자해결과 입국절차에 급급해 교육환경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무방비상태로 낯선 타국에서 살게 되었다. 언어정착이 필요한 중학교시기에 현지어(러시아어, 타지어)와 영어를 학습언어로 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춘기까지 겹쳐지면서 예민하고 불안한 감정들이 여러 반응으로 표출되었고, 가족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다.(청소년 사역과 영상에 열정이 있는 단기 사역자의 섬김으로 몇몇 청소년들과 함께 매주 사진과 영상을 배우면서 건무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분야와 비전도 발견했다.) 결국 학습언어를 모국어인 한국어로 결정하고, 중졸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에서 기숙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학습방향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느 덧 대학을 준비하는 고3이 되었다. 사실 한국으로 오면 모국이기에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해결 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로 또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여러 도움으로 잘 이겨냈고
비교적 건강한 영육으로 인해
감사 할 따름이다.

개별상담 받는 MK



MK입시상담세미나 결국 정답은 하나님

유은선 선교사
TIM본부

우리 가정은 2017년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현재 TIM본부에서 MK사역을 하며 선교지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BK(Business Kids)로서 6살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제 3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선교지 내 잦은 이사나 안식년 등으로 국가이동이 빈번한 MK들에 비해 안정적인 현지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와 생활이 보다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부에서 MK사역을 하는 저는 BK로서 살면서 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MK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취학 아동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제 자녀들의 입시가 머리 속에

MK입시상담에 함께한 부모선교사님들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은 MK들에게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지면서, 선교사님들이 으레 하게 되는 자녀 입시 고민이 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현지 학교에 다니는 아이, 홈스쿨링하는 아이 또는 부모와 떨어져 홀로 유학 생활하는 아이,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급히 귀국한 아이 등 많은 난관 속에 살아가는 MK들은 한국으로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했을 당시보다 훨씬 어려워진 재외국민 전형을 보자니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은 MK들에게 높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부모선교사님들은 본인의 선택이니 사역적 희생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온전한 한국인이라 할 수 없는 MK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제일 우선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현재 양지 비전빌리지에는 본국사역 기간 중 H2H(본국선교사훈련)과 H2K(본국선교사 리더십훈련)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중 여러 가정의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20여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학 수시와 입시상담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부모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며, MK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학과와 전형을 찾아 정보를 드리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시상담 선생님과 부모선교사님들과의 상담이 끝난 후에는 자리에 함께 한 MK들과도 진로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MK들 또한 어느 한국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 대답에 아이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근데 왜 지금 선교사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

상담 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던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과 나왔어요?” 제 대답에 아이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근데 왜 지금 선교사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시의 나 또한 내가 무얼 잘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막막한 마음과 그저 성격에 맞춰 적당한 대학에 가고 높은 연봉의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를 했을 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음성이 공부할 이유가 되어 그에 따른 길을 걸어 가는 지금이기에 “그 동안 내가 배우고 전공했던 학과와 공부와 경험했던 직업들 모두 남들 앞에 자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어. 그것들이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지금의 직업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직업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다소 반항적이었던, 혹은 무관심해 보였던 아이들의 입에서 “그것 봐, 결국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 밖에 없대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대견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교의 길을 걷는 부모를 원망하고,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세계관에 깊숙이 새겨진 ‘기도에 응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양육하셨을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하니 왠지 모를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게 될까? 우리는 “결국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느 길을 가는 것보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정의 기쁨과 자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MK들과 부모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MK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상에 높이 세워진 글로벌 리더십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게 될까?
우리는 “결국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MK 학교생활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MK 박주원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15살 MK 박주원 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9년 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생과 한국에 와 있어요. 4살 때부터 외국을 왔다 갔다 해서 한국어 실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학교생활을 열심히 써 볼게요^^

4살 때 인도네시아에 와서 그 때 기억은 잘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았어요. 작은 Internasional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MK였던 형, 누나들과 놀면서 지냈어요. 그 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요.

7살이 됐을 땐 아빠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중동에서도 살았어요. 이 때 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좀더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8살때, 인도네시아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그 지역 학교에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또래 유치원 친구들과 잘 어울

양지에서 가족사진





리는 동생과 달리 저는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가 되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사투리로 “내일 준비물로 자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표준어 밖에 몰랐던 저는 다음날 자를 챙겨가지 못했어요. 선생님께 가져가지 못한 이유도 말씀 못 드린 채 엄청 혼났어요. 너무 기분이 상했던 저는 2학년이 끝나자마자, 아빠에게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간절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3학년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학교는 인원이 적어서 3학년은 저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교실 귀퉁이에서 함께 공부했고, 제 일이 빨리 끝나면 4학년 수업을 재미 삼아 들었어요. 학생 수는 적었지만 점심시간마다 4, 5, 6 학년이 함께 뛰어 노는 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 4학년을 마치고, 다시 P지역으로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1학기가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없이 처음 다녔던 작은 Internasional학교에서 4학년을 다시 다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4학년은 7명이 다였고, 저는 친구들 중 한 명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한번은 그 친구가 제 말을 비꼬는 게 너무 싫어서 크게 싸워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그 친구를 때린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친구와 싸운 건 정말 후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그렇게 나쁘게 대해도 되는지 저 자신이 미웠지만,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다음부터는 더 참아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저의 다짐과 노력이 부족했는지, 두 번째 사건이 5학년때 터졌어요. 이유와 과정이 어떠한지 제가 그 친구를 심하게 대했다는 건 처음과 같았어요.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친구 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6학년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이 얼마나 축복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모님, 동생과 떨어져 지내는
낯선 학교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요.

코스타를 가게 되었어요. 방학에 놀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수련회로 인해, 저는 제 인격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현재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잠시 떠나,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예정이에요. 동생 지수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전부터 도움 받았던 선교사님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삶이 얼마나 축복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모님, 동생과 떨어져 지내는 낯선 학교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의 인도네시아 학교생활을 정리하는 이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어 감사해요.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FA선교사 종료 간증 축복의 땅에서 만난 친구

안보배 선교사
FA 14기

네팔 K지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편이기도 하고 음식도 생각보다 입에 잘 맞았습니다. 잠을 못자거나 장염으로 고생하는 팀원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친구들만 잘 만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여자 친구들이 모인 곳을 찾기로 어려웠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음도 체력도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30년이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청년들이 같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두 달 정도 되니 참을성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러 왔는데, 덥고 지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어렵고, 공동체를 사랑하기에는 이론만 앞서지 실제로 적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팀원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왜 선교사로 보내셨는지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주 가는 빵집 직원인 바OO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OO는 한국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을 하면서 '수력차'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력차는 이전 기수 FA에서 TP선교사로 전환해서 사역한 자매였습니다. 이전 친구들

49

바OO 집에 초대받은 FA14기



이 씨를 뿌린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좋다고 하고, 특별히 잘 해 준 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니 흔쾌히 좋다고 하고 진짜로 토요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수력차 선교사와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런지 기도시간에 눈을 감고 진지하게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친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더 친해져서 바OO 집에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겨우 몇 번 만나건 뿐인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환대를 해주니 감사했습니다. 장기 선교사님들이 네팔 K지역은 추수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한데다 평소보다 체력적으로 지쳐있었습니다. 준비에 집중하느라 바OO에 미리 연락하지 못했지만 교회도 몇 번 나왔고 이미 초청장도 주었으니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당일 날 바OO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있어서 부랴 부랴 전화를 했더니 집으로 직접 데리러 오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쓰신다.

지금은 전도 집회 막바지 준비로 다 같이 연습을 해야 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다른 날 보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몇 번 데리러 갔었고 교회 위치도 알고, 지금 내가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데리러 오지 않아 못 온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바OO 없이 104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전도 집회는 성대하게 마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바OO에게 화를 내고, 최선을 다해 바OO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집회가 잘 끝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영혼구원보다는 내 기분과 내 입장이 중요한 사람이 선교사로 와 있는 것에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더 났습니다. 그 다음날 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팀원의 권유로 화를 가라앉히고 바OO를 데리러 갔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와야 했고, 엄마대신 온 가족의 손빨래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친구가 데리러

오면 같이 나가기가 수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비록 전도 집회에는 오지 못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바OO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모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쓰신다.'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합숙훈련 강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나,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땅 K지역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FA



7월 | FA15기 홍보



7월 | FA15기 홍보



7월 | FA14기 사역종료 입국



7월 | FA14기 사역종료 입국



7월 | FA14기 사역종료 입국



7월 | FA14기 사역종료 디브리핑



7월 | FA14기 사역종료 디브리핑



8월 | FA15기 훈련개강 예배



8월 | FA15기 훈련



8월 | FA15기 전도 훈련



8월 | FA15기 훈련 수료

기도모임



7~9월 | MK 기도모임



7~9월 | 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 파송



6월 | 바나바, 헬시바 선교사 2기지역 파송



8월 | 리베, 가예, 시안 단기선교사 파송

세미나 · 행사



6월 | 대외기관동원(전주비전대학 외국인 학생)



6월 | MK학습·진로상담 세미나 - 타지키스탄



8월 | MK입사상담 세미나



8월 | 2018년 2차 본부지역선교사 여는예배

훈련



6월 | 2018년 2차 본국 선교사 본부지역 여는예배



7월 | 2018년 2차 본국 선교사 본부지역



7월 | 2018년 2차 본국 선교사 본부지역



7월 | 2018년 2차 본국 선교사 본부지역



7월 | 2018년 2차 본국 선교사 본부지역 닫는예배



8월 | 2018년 본국 선교사 팀빌딩 워크샵



8월 | 2018년 본국 선교사 H2H, H2K 수료식



6월 | 2018년 신임선교사 재생산하는 선교적 교회개혁 훈련



7월 | 2018년 신임선교사 TCT 훈련



8월 | 2018년 신임선교사 TCT 훈련 중간점검



7월 | 2018년 하반기 단기신임선교사 수료



8월 | 2018년 하반기 단기신임선교사 TST

반석교회 비전교회 소양교회 수원영락교회
 영원교회(원미구) 영원교회(소사구)
 예수누리교회 예수향기교회 은광교회 의정부영락교회
 일산함께하는교회 일산혜림교회 진세골온누리교회
 충만한교회 풍동교회 풍성한교회 하림교회 희망의교회

경기

그레이스선교교회 나눔아트센터 대군통상
 라이브교회 미아영문교회 서울성원교회
 소원의향기교회 승복교회 여향교회 오륜교회
 은평제일교회 임마누엘교회 중앙교회 하늘소리선교회
 행복한주원교회 화평교회
 AM(Asian Mission) 21세기푸른나무교회

서울

열방교회 온누리소망교회 인천청지기교회
 코스모스교회

인천

충북

회남교회

전북

정읍순복음교회

전남

계산교회 성전중앙교회
 완도성광교회 이읍교회



경북

시와찬미교회

53

부산

부산부평교회
 제8영도교회

대구

대구성원교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ACTS 비전빌리지 3층
Tel. 02-794-1063
E-mail. tim1996@hotmail.com

두란노해외선교회 미주지부(TIM-America)
Jewish Community Center of Fort Lee,
1449 Anderson Avenue, Fort Lee, NJ 07024
Tel. 1-201-461-4010 (Sam Ahn)

두란노해외선교회 일본지부(TIM-Japan)
Hirata 3-17-3 Ichikawa city Chiba
prefecture, Japan
Tel. 81-47-378-0313